

CGNTV

MAGAZINE | Winter 2015_Vol.11



www.cgntv.net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T.02)796-9800 F.02)749-6638 www.cgntv.net





MK(Missionary Kids) 열 명 중 일곱 명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열 명 중 다섯 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MK 열 명 중 아홉 명은 선교사인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열 명 중 8명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열 명 중 네 명이 부모님에 이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MK라는 이유로 겪지 않아도 될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했지만

어느 새 그들은 그 눈물 위로

커다란 꿈을 꾸는 멋진 청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 CGNTV <MK의 고백>중에서

제7회 한국기독언론대상 '기독선교부문 특별상' 수상작

CONTENTS

Winter 2015_Vol.11

포토에세이 _ 사진작가 신미식

I. 특집

04 2015 특별한 프로그램 그리고 사람

II. CGN ALBUM

12 CGN Season Calender 1 _ CGNTV 직원 수련회
십자가의 전달자

14 CGN Season Calender 2 _ CGNTV 드림온 콘서트
선교지의 꿈을 밝히는 밤

16 선교지의 아침 _ 드림온 콘서트 초청 선교사 3인
"CGNTV는 나의 선교 동역자" 세 선교사 이야기



COVER STORY

CGNTV의 2015년 선교 스토리
한 영혼을 향한 CGNTV 프로그램.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5년 12월 20일(통권 제 11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유재건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기획 CGNTV 홍보팀

진행·편집 정원이, 정현우, 조인애

글 조인애

사진 박민수, 정현우, 여준원, 스파지오

디자인·인쇄 페이지원 (02-757-3111)

III. 프로그램

19 CGN 인터뷰 _ 방송인 사역자 윤희주
누군가 하지 않고, 가지 않은 길을 따라

22 CGN 감상실 _ 예비 여 선교사들이 본 <女 선교사, 조선을 비추다>
여 선교사들이 만난 女 선교사들

24 CGN 초이스
다시 쓰는 ACTS 29 '예수바보행전' 외

IV. CGN 소식

26 기획 _ 이슬람권 미디어 선교
CGNTV와 이슬람권 미디어 선교 그리고 MCC

28 CGN 뉴스 _ 국내, 해외

33 후원안내

34 요일별 편성표

36 에필로그 _ CGNTV 초대운영위원장 지성한 장로
CGNTV는 기적의 산물

한해를 마무리하며 덕유산을 찾았다.
한국의 산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새삼 감탄한다.
겹겹이 펼쳐져 있는 능선.
구름을 머금은 덕유산은 마치 바다에 떠있는 섬 같다.
카메라를 들고 떠난 겨울 산행.
실 새 없이 감동을 느끼며
힘겨웠던 만큼 행복했던 기억을
셔터를 눌러 맘 속 오래 남을 선물을 남겨본다.

- 덕유산에서

2015 특별한 프로그램 그리고 사람

CGNTV는 2015년 개국 1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 향해의 키를 틀고 그 첫 발을 떤 한 해를 보냈다. 지난 10년 사역의 길을 공고히 하며 선교사들을 돕는 특집 콘텐츠를 공들여 제작 방송했고, 사역의 4대 핵심 영역인 '선교' '차세대' '통일한국' '사회선교(하나님의 정의)'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해 국내외 교계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CGNTV 매거진은 한 해를 마감하며 또 하나의 선교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던 자사의 2015년 특별 프로그램들을 주제별로 재조명한다. 더불어 올 한해 CGNTV 사역에 온기를 더했던 뜻 깊었던 만남, 아름다운 얼굴들을 소개한다.

CGNTV TO YOU 2015 SPECIAL PROGRAM

기독인들에게 던지는 이 시대의 화두

다문화, 탈북자, MK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1. 개국 10주년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 1부_다문화 선교 이제는 역 파송이다(사회선교)
- 2부_한국교회,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다(통일한국)
- 3부_MK의 고백 : 처음 만나는 MK 이야기(차세대)
- 4부_다시 쓰는 ACTS 29 '예수바보행진'(선교)

개국 10주년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4부작)는 각 편 별로 '사회선교, 통일한국, 차세대, 선교'를 테마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선교 패러다임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각각 다문화인, 탈북자, 선교사 자녀들, 평신도 사역자들에 주목했고, 그들을 통한 사회선교, 통일한국, 선교의 내일 등을 이야기했다. 특히 차세대 편인 <MK의 고백>은 바른 기독교인상을 보여준 점을 인정받아 제 7회 한국기독교인론대상 '기독교선교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 다문화 선교 프로젝트, 지구촌 반상회

바야흐로 다문화 시대다. 이제 이웃이 된 그들. 하지만 선뜻 다가서기엔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 <지구촌 반상회>는 '서로에 대한 오해가 사라진다면 복음도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반상회 형식의 토크쇼다. 박지운 아나운서의 진행과 다국적 패널들의 풍성한 이야기들을 통해 다문화인들의 생각과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



3. 주제별 열린 대담

- 다문화선교의 현재와 미래사역
- 2015, 선교사자녀 MK현황과 케어방안
- 한국교회,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 낮아짐의 실천과 한국 선교의 미래
- 글로벌 대담, 메가처치의 선교적 책임

전문인 패널들의 열린 대담. <개국 10주년 특별 기획>의 화두를 전문가들의 대담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알아 볼 수 있다.

차세대 신앙인들을 위한 새로운 도전

제자 삼기

1.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의 불씨를 나누는 삶. 청년제자프로젝트 <RUN>은 전도의 다음 과정을 '제자화'로 보고 그것을 보다 쉽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이론들을 소개했다. <RUN>이 소개하는 각 회별 제자화 모습은 상황에 맞게 나와 교회의 제자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일본 CGNTV> 성경의 마을

어린이 예배프로그램 <성경의 마을>은 주일학교 교육이 열악한 일본의 어린이들이 이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선교의 비전을 키울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찬양의 숲, 선교의 항구, 말씀의 창고, 이야기의 집, 기도의 등대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돼 있다.



내한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내한 선교사 130주년 기념

1. 내한 선교사 13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 :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여성선교사, 조선을 비추다

<블랙마운틴>, <여성선교사>는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했던 그들이 오늘 날 한국의 발전과 복음화에 어떤 영향력을 남겼는지 그 산 역사를 보여준다. 그들은 한국인들도 천대했던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영육을 치료했고, 이름도 없이 살았던 조선의 여성들을 깨웠다. 고국을 떠나 생면부지의 민족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블랙마운틴의 선교사들과 가족을 잃는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길을 갔던 여성선교사들. 두 다큐는 지금도 국내외 교회 및 선교단체들 가운데 상영되며 도전과 감동의 여운을 이어가고 있다.



2. 선교토크 <여성, 사랑, 복음>

선교토크 <여성, 사랑, 복음>은 내한 선교사 13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여성선교사, 조선을 비추다> 방송에 발맞춰 제작된 심층 토크 프로그램이다. 진재혁 목사, 방송인 이성미 씨가 진행을 맡고 다큐 제작에 도움을 주었던 교회사 전문가 이덕주 교수, 여성 성서 신학자 이화여대 이경숙 명예교수, <닥터 로제타홀>의 저자 박정희 작가가 출연해 내한 130주년을 맞은 한국 교회가 여성선교사들에게 물려받은 것은 무엇이고 그들의 섬김의 정신과 선교적 업적은 잘 이어가고 있는지 돌아본다.



모바일 폰으로 만나는 3분의 감동

휴먼, 드라마, 실화, 애니

1. KNOCK

페이스북, 유튜브 등 모바일 폰의 여러 창구를 통해 3분 내외의 짧고 강렬한 영상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다. <KNOCK>는 휴먼, 드라마, 실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통해 크리스천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김건희 편'은 온라인 조회 20만 건을 넘어섰고 불교신자들도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CGNTV WITH YOU

2015 SPECIAL PEOPLE

선교지를 감동시키는 CGNTV의 힘은 수많은 이들의 감동적인 헌신에서 비롯된다. 보상이나 스포트라이트가 없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순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더 큰 온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CGNTV의 2015년 국내외 사역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뜻밖에 인물들이 예상치 못했던 자리를 채워주어 잘 마무리 됐다. 이에 CGNTV는 2016년을 기다리며 2015년을 채워 준 그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한 영혼을 위한 앱

CGNTV 하모니 앱 개발 | 김희준, 이희연, 최윤정 님 |



CGNTV가 2015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바일 잠금 화면 ‘하모니 앱’을 선보였다. 모바일 폰을 손에 쥐면 가장 먼저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정해진 로드 맵 어디를 따라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됐다. 이는 김희준, 이희연, 최윤정 님과 CGNTV 웹미디어국이 매주 함께 큐티하고 중보기도하며 도달한 결과물이다. CGNTV 운영위원인 김희준, 이희연 님과 IT 전문가인 최윤정 님은 모바일을 매개로한 CGNTV 후원 프로그램 개발을 꿈꿨다. 이를 실현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첫 걸음으로 착수한 일이 바로 말씀이 풍성한 모바일 잠금 화면이었다. 세 집사는 각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매주 화요일 아침 7시면 CGNTV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회의하며 이 사역에 본업 이상의 열정을 쏟

았다. 또 앱 개발 및 홍보 비용 전반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 앱은 아직 그들이 꿈꿨던 모바일 후원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일을 섬겼던 2015년, 일상이 더 부유해졌다고 고백했다. 하모니 앱을 열어보시라! 말씀이 풍성한 CGNTV와 꼭 닮은 이 앱에서 남다른 온기가 느껴질 것이다.

푸근한 말 한 마디

<통일 북소리> 진행자 | 개그맨 오지현 님 |



<반갑습네다> 시즌 2로 2014년 봄 시작된 <통일 북소리>는 CGNTV에서 오랫동안 북한 선교를 위한 큰 축을 담당하며 꾸준히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부터 보조 진행자로 함께 해준 개그맨 오지현 님은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준 숨은 공헌자 중 한 사람이다. 이는 평소 그의 푸근한 이미지와 재미있는 입담이 한 몫 하기도 했지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빠짐없이 자리를 지키며 출연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시청자의 눈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준 그의 진심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여러 출연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내게 <통일 북소리> 촬영은 방송이 아닌 재충전의 시간이었다”고 한 그의 말을 통해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그는 <통일 북소리>에 없어서는 안 될 윤희유였다.

다문화 선교 프로젝트를 위한 만남

<지구촌 반상회> 출연자 | 인도인 판카즈 전도사 님 |



다문화 선교 프로젝트로 2015년 첫 선을 보인 <지구촌 반상회>는 반상회를 콘셉트로 다문화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나누는 자리였다. 반상회 부반장이었던 인도인 판카즈 전도사(나섬교회) 님은 프로그램 속 ‘약방의 감초’와 같은 인물이었다. 인도인 특유의 흥이 넘치던 그는 한국사람 보다 더 한국의 유머를 잘 구사했고 다른 외국인 출연자들의 부족한 한국어를 채워주기도 했다. 2005년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한국에서 복음을 접한 그는 2015년 목사 시험에 통과했다.

2016년 목사 안수를 받는 그는 이제 곧 가족들도 여전히 힌두교 신도인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지구촌 반상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였던 우리가 마음껏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한 그는 역파송 선교의 좋은 예로 다문화 선교 프로젝트의 깊은 의미를 더해주었다.

애정 어린 모니터

제 3기 시청자 모니터단 | 장은정 님 |



CGNTV는 모니터단을 통해 심도 깊은 시청자 의견을 접한다. 이는 프로그램이 만드는 사람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한 지구책이기도 하다. 2015년에도 제3기 시청자 모니터단 6명은 숨은 곳에서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줬다. 그 중 한 사람이었던 장은정 님은 수험생 자녀를 뒷바라지 하면서 매주 두 세 편의 모니터 보고서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던 정기모임도 성실하게 참석했다. 이를 주관한 편성기획팀은 “프로그램과 CGNTV 사역에 대한 그녀의 애정 어린 시선과 격려하는 사역에 큰 힘이 됐다”고 했다. CGNTV의 비전에 빛진 자같은 마음이 들어 그동안 월요 중보기도팀에서 꾸준히 기도해왔던 그녀는 이 일까지 섬기며 지난 한 해 CGNTV를 위한 일에 마음을 다해 주었다.

생명의 삶에 진솔한 증인

큐티 간증수기 당선자 | 이현주 님 |

CGNTV는 한 영혼이 주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은혜를 듣고 이를 방송을 통해 나누고자 2015년 '생명의 삶' 큐티 간증 수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많은 이들이 진실한 고백을 전해왔고, 그중 이현주 님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현주 님은 수기를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했던 시간을 차분하게 써내려갔다. 특히 손을 대 나병환자를 치료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시선이 늘 슬프고 아팠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아왔다. 묵상을 계기로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드리게 됐다는 그녀는 힘겹게 쓴 타자로 진정한 '생명의 삶'의 한 면을 은혜롭게 나눠주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

<The 부르심>(미주 CGNTV) 진행자 | 신성진 님 |



미주 CGNTV 자체 제작 프로그램 <The 부르심>의 진행자 신성진 님은 아이 엄마로서 바쁜 일정을 살고 있지만 지난 한 해 프로그램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해 주었다. 미주 상황 상 출연자 섭외 문제 등으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녀는 늘 웃는 모습으로 변동된 상황에 잘 맞춰주었다. 미주 CGNTV는 "앞으로 프로그램이 100회 200회 될 때까지 그녀가 지금처럼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도의 어머니들

아랍에미리트 CGNTV | 중보기도팀 |

아랍에미리트 CGNTV에는 기도 어머니들이 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면 담당 직원이 없어도 늘 자체적으로 모여 기도회를 갖는다. 그녀들은 "CGNTV 사역이 아랍지역에서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알고 있다"며 서로를 독려하고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에는 사무실에서 하던 소규모 기도회를 장소를 옮겨 좀 더 확장하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 CGNTV 담당 최서우 PD는 "2015년에는 MCC(Media Communicators Conference), 이집트 반석미니스트리와 MOU, 유럽의 난민 고속도로 취재, 한국 수련회 방문 등 큰 일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늘 자리를 지켜주신 덕분에 모두 잘 치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럽의 난민 하이웨이>(아랍에미리트 CGNTV) 공동 취재 | 이중덕, 김형석 님 |

아랍에미리트 CGNTV는 포토 저널리스트 겸 난민 사역자인 이중덕, 김형석 님의 도움으로 3주간 진행됐던 <유럽의 난민 하이웨이>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취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자체가 이 중덕 님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난민들 실정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이중덕 님은 9개국을 통과하는 동안 여러 미팅과 이동 경로 파악에도 앞장 서 힘써주었다. 김형석 님은 무거운 장비를 도맡아 챙기고 취재팀의 상처 하나까지 자상하게 챙기며 맡겨진 역할을 겸손히 섬겨주었다. 담당 PD는 "취재는 물론 여정 가운데 난민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동역자의 어려움도 챙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다"고 했다. 그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유럽의 난민 하이웨이>는 2015년 12월 말 방영된다.



프로그램 제작을 내 일처럼

JCM(Japan Creative Ministry) | 후지타 게이코 목사 |



후지타 게이코 목사는 2015년 일본 CGNTV 신규 방송인 어린이 프로그램 <세쇼노무라> 제작을 위해 한 해 동안 전폭적으로 헌신해주었다. 이바라키 현에서 동경까지 매번 촬영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의상도 손수 준비하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또한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며 필요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일본 CGNTV는 "그녀는 일본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한 '세쇼노무라'의 가장 큰 공헌자"라며 "방송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목사님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복음화의 동역자

대만 CGNTV | 하오평성 음악단, 린츠신 박사 |

하오평성 음악단은 대만 CGNTV의 개국 7주년 감사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며 누구보다 이 사역의 길을 축복해주었다. 그들은 오프라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찬양 인도를 맡아 자리를 풍성하게 이끌어주었다. 중국어 IR 녹음, M/V 제공 등 지난 한 해 다방면에서 CGNTV의 대만 사역에 협력해주었다. 홍콩 출신 복음주의 신학자 린츠신 박사는 미국에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중 6개월 이상 아시아 대륙에서 보내며 말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만 CGNTV의 복음주의 신학프로그램을 위해 바쁜 일정 중 일주일 가량을 신학강좌 촬영에 할애하고 대만 복음화를 위해 동역했다.





CGNTV 직원 수련회 십자가의 전달자



1. 수련회 시작과 함께 국가별로 입장하고 있는 CGNTV 해외지사 및 제작센터 사역자들.
2. 자신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는 시간.
3. "전 세계 선교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해요!" 수련회를 마친 CGNTV 전 직원들.
4. 공동체 훈련 요리대회. Team Cook.
5. '십자가의 전달자'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 강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
- 6,7. 기도와 찬양으로 뜨거운 저녁 집회 모습.

CGNTV 전 직원들이 새해 새 도약을 위해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Acts 29 비전빌리지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십자가의 전달자' (빌 2:6~8)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직원들의 영성과 화합을 공고히 하고 부서별 새해의 비전을 공유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에 따라 6개 해외지사 및 제작센터의 직원들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전 직원들은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 각 해외 팀들을 일일이 환영하며 격려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주요 일정으로 팀별 요리대회가 펼쳐지는 등 약자지결한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 훈련이 진행됐다. 그리고 직원 개개인의 이야기에 서로 귀 기울여주는 팀별 모임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또한 2016년을 앞두고 전사적, 국별 비전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CGNTV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전 직원이 주제인 '십자가의 전달자'를 깊이 새기는데 힘썼다. 메시지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는 "십자가의 전달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그 비밀을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예배는 직원들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금 사역의 출발점을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CGNTV 드림온 콘서트 선교지의 꿈을 밝히는 밤

첼리스트 김두민 씨가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CGNTV 드림온 콘서트 무대에 섰다. 지난 해 함께 무대에 올랐던 그의 아내 소프라노 이은영 씨는 없었다. 대신 그는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의 하모니카, 이은영 씨의 오빠인 이승권 씨의 클라리넷과 함께 그의 아내가 소천하기 2주 전까지 주일 예배 오프닝 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연주했다. 그의 아내 이은영 씨는 지난 해 대장암 말기 투병 중 CGNTV 애청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김두민 씨는 "아내가 CGNTV를 통해 약할 때 일어설 수 있었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노래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CGNTV 드림온 콘서트가 지난 11월 12일 저녁 7시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CGNTV 후원자 280여 명이 초청된 가운데 CGNTV사역의 값진 열매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다. 팝 피아니스트 신지호 씨의 연주로 문을 연 행사는 방송인 오미희 권사가 진행을 맡았다. 배우이자 성우인 장광, 성병숙, 개그맨 오지현 씨 등 CGNTV 출연자들의 토크와 CGNTV를 후원받은 현장 선교사들의 은혜의 간증 등이 훈훈한 분위기를 더하며 무대를 밝혔고, 세계 각지 선교사들이 전하는 진솔한 영상 감사메시지들이 몽클한 감동을 전하며 사역의 생명력을 대변했다. 메시지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분의 방법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믿음선교(Faith Mission)의 길을 갈 것"을 강조했다.



1



4



2



3



6



5



7

1. 진행자 방송인 오미희.
2. 새로운 꿈을 위해, 행사를 마친 CGNTV 전 직원들.
3. CGNTV 직원들이 초청 선교사들에게 직접 쓴 감사 카드.
4. 2015년 함께 했던 CGNTV 출연자들. 인터뷰 후 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을 하고 있다.
5. 참석한 후원자들 모습.
6. 직원 특순 '십자가의 전달자' 합창.
7. 첼리스트 김두민의 축하 공연.



“CGNTV는 나의 선교 동역자”

세 선교사 이야기

CGNTV 드림온 콘서트가 열린 지난 11월 12일 밤, 세 명의 해외 선교사가 이 자리를 위해 하늘 길을 날아왔다. “CGNTV는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라고 입을 모은 이들은 CGNTV를 설치 받았던 선교사들이다. 이들은 어느 날 찾아 온 CGNTV가 하나님의 마음이자 긴 편지 같았기에 그 사실을 나누는 자리에 기꺼이 참석했다. 이들의 고백이 있던 그날 밤, 또다시 많은 이들이 ‘드림 온’, 또 한 사람의 선교사, 또 한 곳의 선교지를 위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동참했다.

Chapter 1. 생각의 변화

“CGNTV는 선교사를 깨우는 선교사입니다.” 차빌립 선교사는 지난 13년 간 아내와 함께 필리핀 선교에 힘써왔다. 선교의 방향을 ‘교육’에 두고 신학교 교수, 청소년 양육, 교회 개척 등을 중심으로 신실하게 복음의 씨를 뿌렸다.

선교지에 도착한 초창기 3년, 한국어로 된 글과 영상을 일절 멀리할 만큼 오로지 선교 필드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매일 먹던 김치도 타지에 가면 더 생각나는 법. 강한 다짐 한 구석에서 알 수 없는 반작용도 있었다. 그즈음 차 선교사는 아내가 CGNTV를 통해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도 CGNTV를 시청하기 시작했고 예배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두 문화를 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겐 큰 사고의 변화였다.

차 선교사는 7년 전 필리핀 바기오에서 처음 CGNTV를 만났다. 그 지역에서 안테나를 달아주던 김남섭 선교사를 통해 CGNTV 안테나를 설치 받았다. 그도 언뜻 CGNTV를 알았지만 CGNTV가 먼저 그를 찾아온 것이다.

차 선교사는 산악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종종 고립감이나 존재적 외로움 등을 느꼈는데, 때마다 CGNTV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 동료 선교사들을 만나 시청한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역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은혜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손길에 비해 살피주는 손길이 부족한 시대에 CGNTV가 선교사 케어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선교사를 깨우는 선교사”. 그가 CGNTV에 대해 한마디로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GNTV는 선교사를 깨우는 선교사”



필리핀 차빌립 선교사

Chapter 2. 신학교육을 받기 시작한 목회자들

2013년 스페인의 한 보고에 따르면, 중남미 목회자들의 85%가 신학 교육 없이 목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목회자 훈련이 이 지역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선교의 과업인 것이다. CGNTV 중남미 위성신학교 사역은 미주 CGNTV 개국 이듬해인 2006년 이를 위한 선교 방안으로 첫 발을 뗐다. 김선근 선교사는 본 위성신학교의 부총장직을 맡아 이 과정 전반을 운용하며 남미 복음화를 꿈꾸고 있는 선교사다.

2006년 1개 캠퍼스로 출발한 이 학교는 현재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등 8개 나라 103개 캠퍼스로 확대됐다. 전체 학생 수는 1500여 명에 달한다. 신학 교수, 선교사, 교회 개척자 등 귀한 열매들도 맺고 있다. 불량배였던 한 청년은 이 신학교육을 받고 목회자가 돼 자신이 잘못된 지역을 찾아가 직접 복음을 외치고 있다.



과테말라 김선근 선교사

또한 경계선 없는 이 복음의 발은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물론 국경 근처 마을이나 신학교를 할 수 없는 지역까지 깊숙이 들어갔다. 교도소 내 신학교육도 가능하게 됐고 과테말라 전체 공립학교에서 윤리 교육을 위한 도구로도 쓰이게 됐다.

김 선교사는 “이 사역이 남미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미주 CGNTV, 전임 총신대 총장 박영희 박사, 과테말라 사랑의교회 이종석 목사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퍼즐처럼 맞물려 진행된 것 같다”고 고백했다.

김 선교사는 CGNTV와 함께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서 “CGNTV는 선교사와 디아스포라를 돕는 방송이자 현장 선교사 자체”라고 평가했다. 또 “기독교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한 선교지에서 선교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더빙만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디지털 도서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GNTV는 선교사와 디아스포라를 돕는 방송이자 현장 선교사 자체”

Chapter 3. 하나님의 선물



몽골 김여일 선교사

CGNTV는 그가 바랐던 교육용 콘텐츠를 보강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때론 가족처럼 힘과 위로를 주었다.

김여일 선교사는 65세였던 지난 2008년 국내 목회를 자진 은퇴하고 아내와 함께 몽골로 떠났다. 몽골은 그가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묻은 땅이기도 하다. 그의 아들 김성호 선교사는 몽골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2000년 7월, 일정 3일 만에 감전사고로 순교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깊은 자책과 슬픔에 빠졌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보낸 지 8년 뒤인 2008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장막을 옮겼다. 그는 그때 하나님께 “네 아들을 몽골로 보낸 것은 내가 아니라 나다. 때가 되면 너도 와라”라는 음성을 들었다. 비록 아들을 앞서 보냈지만 그는 자신과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있고, 그것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달았다.

그즈음 그는 아들을 추모하는 시기와 맞물려 CGNTV에서 연락을 받았다. 교육 프로그램이 빈약한 선교 현장에서 그는 줄곧 TV 프로그램 등으로 신학교의 아쉬운 커리큘럼을 보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는데 뜻밖에 연락을 받은 것이다. 그는 CGNTV가 마치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졌다. CGNTV는 그가 바랐던 교육용 콘텐츠를 보강할 수 있는 수단이 돼주기도 했지만 자신과 아내 곁에서 때마다 가족처럼 힘과 위로를 주었다.

그 뒤로 또 다시 8년, 그는 70세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 아내와 함께 몽골 선교에 힘쓰고 있다. CGNTV는 가정과 학교에 동시에 설치해 가정에선 항상 CGNTV를 켜두고, 학교에선 여러 특별 프로그램들을 선별해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그가 사역중인 신학교의 한 학생은 “몽골 복음화를 위해 찾아와 준 CGNTV에 감사하다”며 “세계 곳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볼 수 있어서 좋다”고 기뻐했다.

누군가 하지 않고, 가지 않은 길을 따라



씨시봉 스타 유형주가 CGNTV 스페셜 토크프로그램 <아주 특별한 하루>의 진행을 맡았다. 편익상 일단 그를 ‘씨시봉 스타’라고 소개했지만 프로그램 속 그는 누구보다 연륜이 묻어나는 방송 진행자였다. 그가 씨시봉으로 많은 이들의 추억을 자극했듯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방송인 유형주는 그가 한창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8, 90년대를 떠오르게 했다. <열린 음악회> <젊음의 행진> <연예가중계> 등이 모두 그를 거쳐 간 프로그램들이다.

청춘의 아이콘처럼 기억되는 진행자 덕분일까? 시니어 목회자들이 말하는 <아주 특별한 하루>의 사람 냄새 나는 지난 시절 이야기는 시종 유머가 있고 따듯했다. 이는 온누리교회 장로이기도 한 유형주가 이미 출연자 홍정길, 이동원 목사와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유형주는 고(故) 옥한흠, 하용조 목사를 포함한 복음주의 4인방 목회자들과 30년을 함께 해 온 사이다. 유형주는 목회자로 구성된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한미준)’의 유일한 평신도기도 하다. 남한산성 목사의 집에서 촬영된 <아주 특별한 하루>는 사실 그에게 ‘아주 익숙한 하루’였던 셈이다.

4인방 뒤에 있던 제 2의 멤버. 씨시봉 스타이자 전문 방송인으로서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그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하늘 길 480만 마일

사업가이기도 한 윤형주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서면 30여 개는 돼 보이는 항공사별 비행기 미니어처들이 한 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금까지 그가 탔던 항공기들이라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내가 하는 일이 좀 많아서”라며 웃음 짓는 그는 지금까지 다닌 하늘 길만 족히 80여 개국 480만 마일은 된다. 남다른 에너지가 엿보이는 그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며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20대 후반 만났던 은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는 이런 그에게 “영락없는 선교사 체질”이라며 “빨리 나가서 순회 선교하면서 선교사들 돕고 현지 한인들 전도하라”고 권했다. 실제로 그는 세계 어디를 가도 가리는 음식이 없고, 기후나 시차 적응에 빨랐다. 또 늘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다.

어머니가 선교사였던 윤형주는 선교의 정신이 있는 가풍 속에서 성장했다. 그의 선조들은 기독교가 한국

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받아드린 이들이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두만강을 건너 지금의 중국 용정 땅인 북간도로 이주하기도 했다. 북간도는 당시 한창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민족들이 독립을 꿈꾸던 땅이었다. 그의 육촌으로 잘 알려진 윤동주 시인도 북간도 출신이다. 윤형주는 윤동주 시인에 대해 “우리 가족이 볼 때 그는 신앙 시인이었다”며 “늘 성경대로 살고자하는 내적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옥고를 치러야했던 20대 초반, 어머니가 넣어 준 성경책 때문이었다. 그는 이사야 43장 1절을 읽으며 인생 2막을



재정비했다.

하용조 목사와 선교, 특히 문화 선교에 관해서는 밤을 밝히며 비전을 나누던 그는 목자의 이야기를 순전하게 따르는 양처럼 사업가이자 가수이면서 늘 자신이 순회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란 생각을 갖고 인생 2막,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주의 일들에 힘썼다. 직함은 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듯하다.

의학도였던 면을 심분 발휘해 백혈병 소아암협회, 장애인 사역, 국내외 우수한 제약회사서 약품을 공급받아 재난지역에 공급하는 IAT 사역에 홍보대사를 맡았고, 한국해비타트 운동, 교도소, 군선교, 이랜드 복지재단 이사장, 아버지학교 이사로도 힘썼다. 자신이 필요한 전도 집회는 힘껏 참석했고 뮤지션으로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찬양을 불러주면 좋을지 연구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에게 직접 교육하기도 했다. 백혈병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노래, 교사들을 위한 노래도 만들고 최근에는 손자가 다니는 학교에 어린이들을 위한 로고송을 지어주기도 했다. 그는 바쁜 일정 중에도 수만 마일 오가는 비행기 속에서 사랑과 위로를 담은 곡들을 떠올리고 썼다.

진심을 담은 기록과 삶

한 영혼을 위한 그의 정성은 그의 기록들도 말해준다.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90년 대 자신의 신앙 성장 일지를 책으로 펴낸 기독교계 베스트셀러 <막 찢낸 찌빵>을 썼을 때 그는 이만재 씨를 위해 양육일지를 썼다. 그가 했던 질문들을 적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그를 위한 섬세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기도수첩, 다이어리에도 그런 정성들이 묻어난다. 그는 인터뷰 자리에서도 볼펜을 들고 자신의 생각을 끄적이며 말할 만큼 메모광이다. 한 대기업에서는 메모에 관한 임원 연수 자리에 예정된 7명을 모두 취소하고 윤형주만 초청하기도 했다. 그는 28줄 대학노트를 일일이 칸을 나눠 5년짜리 다이어리를 만들고 예정된 스케줄은 물론 지난 만남들까지 메모했다. 그것을



일정에 따라 색깔별로 표시해두기도 했다. 그가 그렇게 써내려간 그의 개인 역사만도 6권 남짓, 30년 역사가 다 된다. 그는 다이어리를 통해 누군가와 10년 만에 만나도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의 메모 역사 중 하나인 기도수첩은 그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았던 정성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는 대표 기도를 위해 내용을 한 달 동안 고치고 고치며 준비한다. 그는 “20만 명 앞에서 MC 할 때도 안 떠는데 대표 기도는 늘 긴장된다”며 “그만큼 그 자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했다.

지난 11월 19일 그는 43년 만에 단독 리사이틀을 가졌다. 그간 씨시봉 공연을 주로 해왔지만 이번에는 윤형주만의 고유한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자리로 꾸몄다. 그가 좋아하는 곡, 아끼지만 못 불렀던 많은 곡들을 선보였다. 클래식, 통기타, 가요, 가곡, 칸소네 장르도 다양했다. 자신을 담은 자리여서인지 그의 음악은 마치 각양각색 그의 삶과 닮아 있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팀에게 성탄의 설렘을 담은 자신의 크리스마스 CD를 직접 싸인 해 선물했다. 팀의 부모님들이 팬이라고 하니 그 위에 부모님들을 위한 자신의 찬양 CD도 얹어주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온 그의 노래, 사역, 그리고 삶. 테마는 아마도 사랑과 위로일 듯싶다.

女 선교사 조선을 비추다

메리 스크랜턴과 로제타 홀

여 선교사들이 만난 女 선교사들

세 명의 예비 여 선교사들이 CGNTV의 내한 선교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여 선교사, 조선을 비추다>를 감상했다. 선교의 소명을 품고 이제 곧 선교지를 밟게 될 그녀들은 이번 다큐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녀들이 비추 제 2의 조선을 그려보며 그녀들의 감상을 들어봤다. 그녀들이 밝힌 선교지의 형편상 내용은 무기명으로 실었다.



1. 일어나 함께 가자(A선교사)

130여 년 전 황폐한 조선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본다. 주님은 여성선교사들을 통해 가장 낮고 낮은 이름도 없는 조선의 여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파하며 슬픔을 경험하시고 그들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 했다. 여성 선교사들의 사랑과 열정은 130년을 뛰어 넘어 '일어나 함께 가자'며 나를 깨운다.

나는 아내이며 세 아이의 엄마이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여성 선교사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는 아이들이 아플 때다. 만일 다큐 속 그녀들처럼 선교지에서 남편이나 자녀를 잃는다



면 난 그 땅에서 계속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문 해본다.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아픔들이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조선 여성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지켜보면서 한 개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 피부로 다가온다. 한 여성선교사의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 신앙의 유산은 계속해서 조선의 여성들에게 이어졌다.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었던 여성선교사들의 삶과 사랑을 통해 '나는 어떤 선교사로 준비되어야 하는가' 해답을 얻게 되었다. 삶과 복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선교지를 밟으면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현지인들이 복음을 보고 만질 수 있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갈 때 제 2의 김점동, 여메리와 같은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 사랑하는 만큼 보게 되리라(B선교사)

'여 선교사들은 조선과 조선의 여인을 위해 어떻게 그토록 헌신할 수 있었을까? 메리 스크랜턴과 로제타 홀은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다. 조선의 무지와 어두움, 대물림 되는 가난함을 보는 대신 조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이고 조선의 여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부르심에 순종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전히 헌신한 그녀들의 삶에 감사와 존경을 품게 된다.

나 또한 이제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낮은 땅, 낮은 사람들을 향해 나가야 하는 여성으로서 그녀들의 삶과 헌신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여성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고 남성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에 사는 나로서는 구한말 조선 여인들의 고통과 한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메리 스크랜턴과 로제타 홀을 통해 얻게 된 그녀들의 자유와 기쁨도 온전히 가늠할 수 없을지 모른다.



▲ 박에스더와 로제타 홀

▼ 메리 스크랜턴



하지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나아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그때 보이는 땅은 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을 믿는다. 앞서간 그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3. 복음에 빛진 자(C선교사)

나는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한국선교역사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 한국에 안식년으로 돌아와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한국선교역사를 배우고,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내 신앙의 뿌리가 한국에 와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 덕분에 알게 됐다. 그들은 이 땅의 영과육의 필요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특히 여 선교사님들은 남편에게 종속돼 이름도 없이 살아간 조선의 여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인격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등대의 역할을 해주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아직 그녀들의 헌신과 노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나도 그랬으니까. 나는 한국의 선교역사를 보면서 내가 '복음에 빛진 자'라는 생각을 더 명확히 갖게 됐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빛을 갠기 위해 즐거이 자신을 드려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는 선교사역이 선교지에서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선교지로 떠날 때 나도 받았기에 마땅히 나눠야 할 것을 나누는 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선교지로 향해야겠다.



개국 10주년 특별기획(제4부)

다시 쓰는 ACTS 29 '예수바보행전'

예수바보들이 써가는 사도행전. CGNTV는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제 4부로 다큐멘터리 <예수바보행전>을 제작, 방송한다. '사회선교(다문화)', '통일한국', '차세대' 편에 이어 마지막 테마인 '선교'를 주제로 한 이번 다큐는 창립 이래 오롯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추구해 온 한국 온누리교회의 30년 선교 발자취를 조명한다.

온누리교회는 현재 69개국 851명, 누적인원 총 1733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선교의 요람이다. 고(故) 하용조 목사는 일찍이 성도들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강조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비전이자 교인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 그는 교회 설립 당시 “2000명의 선교사, 10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비전으로 선포했고, 그 믿음의 바람은 지금 한창 실상이 되고 있다.

<예수바보행전>은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 평신도들의 무릎기도에 주목했다. 선교를 외치기 시작한 교회 설립 초창기부터 1988년 시작돼 TIM(두란노 해외선교회)의 모태가 된 '한남동 기도모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장기선교사 훈련과정(OSOM) 및 선교사 파송까지 한국 선교 역사에 초석이 된 온누리교회의 역사를 따라가 보며 오늘날 한국 선교가 나아갈 바를 짚어본다.

※ 방송시간: 12월 27일(일) 오전 10시 30분



온누리선교사와 OSOM후보생

새로운 해석, 잔잔한 감동 스페셜 해외 영상 콘텐츠



[콘퍼런스] 성화

- 2015.11.24~2016.4.5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50분)

존 파이버 목사의 'Desiring God Ministry'에서 개최된 2012년 콘퍼런스 실황. 존 파이버, 케빈 드영, 데이비드 마티스, 러셀 무어 등의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말씀을 전한다.



페리 노블의 믿음의 승리

- 2015.12.14~2016.1.4 (매주 월요일 밤 11시 50분)

뉴스프런치치 담임 페리 노블 목사가 미국 남부 사람들이 사랑하는 두 가지 '교회와 축구'를 주제로 믿음과 팀워크, 헌신에 대해 통찰력 넘치는 설교를 전한다.

[다큐] 오스 기니스의 인생

(원제 : The Search for Meaning: What Matters)

- 2015.12.27 (일요일 저녁 8시 30분)

<소명>의 저자 오스 기니스가 옥스퍼드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간의 숙제인 삶의 목적에 대해, 말씀을 토대로 한 해답을 제시한다.



[영화] 크리스마스의 선물

(원제 : Christmas Grace, 2014년 9월 개봉작)

- 2015.12.24 (목요일 밤 10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두 장난감 가게의 이야기를 다룬 따뜻한 기독교 영화. 게리와 톨맨의 장난감 가게는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경쟁을 벌인다.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게리에 비해 무자비한 톨맨은 결국 게리의 가게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예상 밖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CGNTV와 이슬람권 미디어 선교 그리고 MCC (Media Communicators Conference)

| 함태경 CGNTV 경영본부장 |

인구 3억 2000만여 명이 소위 정통 이슬람권인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 수는 1700만여 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나라들이 거의 복음에 닫혀있다. 그러나 수많은 가구에 위성안테나가 설치돼 있는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인구 중 전체 위성 TV 시청자가 2억 5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한 가정에 위성안테나가 여러 개씩 되기도 한다. 이슬람권의 이같은 환경에 따라 이들 지역을 위한 기독교 위성 방송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오픈소스 미디어를 통해 소핑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접하는 현지인들도 폭증하고 있다.

선교적으로 볼 때 아랍권 최대 기독교 위성방송인 SAT-7의 발전상 또한 눈여겨볼만 하다. SAT-7은 1995년 아랍권에 거주하고 있는 중동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위료가 되고 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시작됐다. 첫 방송 당시, 아랍 기독교인들의 존재를 드러낸 것만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현재 복음 전도의 결실을 맺고 있다. 방송을 시청하던 타 종교인들이 방송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는 사례도 있어 복음 전도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아랍은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1

억 명에 달하고, 그중 최소 50% 정도가 가정에서 위성방송을 시청한다는 통계가 있다. 아랍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각 나라의 미래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정제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007년 12월 SAT-7는 어린이를 위한 24시간 아랍어 위성방송을 송출하는 'SAT-7 KIDS'를 개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SAT-7은 아랍어를 구사하는 3억여 명을 위한 SAT-7 ARABIC,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인기가 높은 SAT-7 KIDS, 30세 이하 인구가 60%에 달하는 이란의 7200만 명을 위한 SAT-7 PARS, 터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을 위한 SAT-7 TÜRK, SAT-7 PLUS 등 5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SAT-7 TÜRK는 TÜRKSAT 4A에 론칭된 첫 번째 기독교 채널이다.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한 SAT-7의 선전도 실로 놀랍다. 오픈소스에 대한 가능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SAT-7 TÜRK의 유튜브 영상물의 조회수가 2013년 4만 4659건에서 2014년 8만 7587건으로 늘어났다. SAT-7 TÜRK의 페이스북 구독자는 2013년 11만 2000명에서 2014년 107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페이스북을 통한 시청자 반응도 70%로 전화 21%,

이메일 9%를 크게 앞질렀다. SAT-7 PARS 유튜브 영상물의 조회수도 2013년 4만 8959건에서 2014년 11만 5319건으로 늘었다. 페이스북의 경우 같은 기간 구독자도 1만 1966명에서 24만 9049명으로 급증했다. SAT-7 KIDS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유튜브 영상물은 78만 4189건에서 2014년 127만 4554건으로 조회수가 늘었으며 페이스북 구독자는 2013년 100만 6523명에서 2014년 563만 9305명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페이스



북을 통한 시청자 반응은 77%로 이메일 14%, 전화 4%, 웹 사이트 메시지 3%, 유튜브 댓글 1%, SMS 1%, 편지 1%를 크게 앞질렀다. SAT-7 ARABIC의 경우 2014년 유튜브 영상물의 조회수는 2014년 816만 840개에 달한다. 페이스북 구독자는 2013년 824만 1388명에서 2014년 3582만 8976명으로 대폭 늘었다.

SAT-7외에도 이슬람권 미디어 선교를 위해 CGNTV와 협력할 수 있는 위성 방송사들이 적지 않다. 성경공부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킹덤셋(KINGDOMSAT), 교회들과 협력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알 카르마(AL KARMA), 사회문제와 기독교 변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미러클(MIRACLE), 반 이슬람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알 하야트(AL HAYAT), 콤팩트 회 채널인 아가피(AGHAPI) TV 등이 있다. 이밖에도 알 파디(AL FADY), ATV SAT, C TV, 미 셋(ME SAT), 알 호레야(AL HORREYA) 등의 기독교방송국이 있다. 이뿐 아니라 프로덕션 형태인 국제아랍센터(International Arabic Center), 리덤 더 네이션(Redeem the Nation), 미디어 하우스(Media House), 베타 라이프(Better Life),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등이 있다.

CGNTV가 3년 여 전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제작센터를 세운 것도 위성 방송이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CGNTV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1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영상·소셜미디어 제작사인 반석미니스트리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참조: 국내뉴스)

CGNTV의 이슬람권에 대한 외연 확대와 지난해부터 두바이한인교회와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미디어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 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MCC(Media Communicators Conference)는 이슬람권 미디어 선교의 또 다른 예다. MCC는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세계미디어 선교의 상황 변화와 선교사별 미디어 사역 비전을 나누는 동시에 촬영, 편집, 취재 보도, 웹과 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전문 교육을 통해 기존 미디어 선교사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있다. MCC를 통해 미디어 선교사들이 모든 계층과 문화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선진 기술을 전수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CGNTV는 미디어 선교에 나설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해 나



가는 한편 복음적이면서도 비기독교인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적극 돕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전문화, 특성화되지 않은 미디어는 흥미 유발 흡인력이 부족해져 설령 유저들이 접속해도 지속적으로 찾아오지 않게 된다.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CGNTV는 가용 자원을 연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협력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기획단계에서부터 목표를 잘 설정하고, 주제에 적합한 탁월한 콘텐츠를 생산, 유통할 것이다. 이슬람권 미디어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독교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도 현지인의 정서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 것이다. 2010년 12월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권 재편과 IS(이슬람국가)의 등장도 오히려 복음적일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필요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됐다. CGNTV는 세계교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도자 훈련, 신학과 성경공부, 주일학교·여성사역·가정·상담·차세대 프로그램의 전문화 등 현지 교회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료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MBB들을 위한 양육 및 훈련 프로그램, 한국의 건강한 기독교 콘텐츠를 더빙 작업 등을 통해 전해주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신학교육과 전도, 양육 시스템의 미디어화, 교회 사역자(목회자 포함)들을 위한 맞춤형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미디어화,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외부 사상 등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미디어화, 어린이·청소년·청년대학생 사역의 미디어화 등을 CGNTV는 월드 크리스천들과 함께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이슬람권에 의한', '이슬람권을 위한' 복음 전파가 가능할 것이다.

국내뉴스

CGNTV 특별 프로 연이은 수상

다큐 <MK의 고백> '기독교 부문 특별상', 기획 보도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 '보도부문 최우수상' CGNTV 2015년 특별 기획 프로그램들의 수상 소식이 연말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MK의 고백-처음 만나는 MK 이야기>(연출 유진주, 작가 장영란, 박서정)가 제7회 한국기독교언론대상에서 '기독교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고, <CGN 투데이-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가 제6회 크리스천기자협회 연말 시상에서 심사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보도부문 최우수상'에 결정됐다.

CGNTV의 4대 핵심영역 중 '차세대' 부문 기획으로 제작돼 지난 8월 방송된 다큐멘터리 <MK의 고백>은 기독교 방송 최초로 MK들의 진솔한 속마음을 담아 은혜와 감동을 전했다.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는 11월 한 달 총 10편으로 보도된 CGNTV 기획 뉴스로 잊혀져가는 중동 난민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담아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기획 보도는 CGNTV 국내외 지사의 합작으로 이루어져 더욱 뜻 깊은 영상이다. 두 작품의 시상은 각각 12월 11일 저녁 CBS 공개홀, 17일 크리스천기자협회 총회에서 진행됐다.

제3기 시청자 모니터단 수료식

CGNTV 제3기 시청자 모니터단 수료식이 지난 11월 4일 CGNTV 본관에서 진행됐다. 지난 2월 발족돼 10월까지 약 9개월간 활동했던 모니터단은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에 참석하고 주 1~2회 모니터 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CGNTV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협력했다. CGNTV는 이들의 활동기간 동안 기도회 및 야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왔다. 지난 12월 1,2,3기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CGNTV 시청자 모니터단 Family Day'를 마련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CGNTV, 이집트 반석미니스트리 MOU

CGNTV가 지난 10월 1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영상·소셜미디어 제작사 '반석미니스트리'와 MOU를 체결하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미디어 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연간 최소 2편 이상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고, 2016년부터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유튜브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 공동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반석미니스트리는 향후 현지 실정에 맞는 CGNTV 콘텐츠를 선별해 이들이 SAT7, 킹덤샷(KINGDOMSAT), 미러클(MIRACLE)등 이슬람권 기독교 위성방송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이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아랍의 봄>은 킹덤샷 등을 통해 방영된다.



은혜샘물교회 CGNTV 후원 동참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은혜샘물교회(담임목사 박은조)가 지난 9월 20일(주일) CGNTV 후원 주일을 마련해 CGNTV 후원에 적극 동참했다. 교회는 주일 예배 2부부터 4부까지 매 예배 때 CGNTV 소개 영상을 상영했고 박은조 담임목사가 적극 후원을 독려했다. 박 목사는 "최근 CGNTV의 내한 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을 보고 큰 감명을 받고 후원주일을 준비했다"며 "지난 10년 늘 CGNTV를 응원해왔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도 총 100여 명이 CGNTV 후원을 약속했다.



CGNTV 후원 모임 이어져

CGNTV를 후원하는 손길이 각계각층 다양한 자리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용인 '골드CC'에서는 코리안 탱크 최경주 선수와 함께하는 'CGNTV 후원 골프대회'가 진행됐다. CGNTV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진 본 행사는 최 선수를 비롯해 방송인 이소라, 가수 백지영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1월 30일(월) 저녁 7시 30분 온누리교회 양재 사랑홀에서는 CGNTV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온누리 챔버 연주회가 펼쳐졌다. CGNTV 직원들도 초청하여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찬양, CCM,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펼쳐졌다.

CGNTV 정기후원행사, 후원자 2만 6천명 돌파

CGNTV 정기후원자가 2만 6000명을 돌파했다. 지난 10월 4일(주일)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에서 실시된 '2015 CGNTV 정기후원행사'에서 총 4100여 명이 CGNTV 후원을 약속했다. 신규 후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증액 후원이 지난해 대비 1.5배 증가했다. 성도들이 약속한 본 후원금들은 연간 6000여 편의 CGNTV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170여 개국 방송을 위한 위성 빔 사용 지원 제작비 등으로 사용된다. 순수복음방송 CGNTV의 후원은 CGNTV 홈페이지 후원코너를 통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해외뉴스

아랍에미리트 CGNTV

중동 난민 동행 취재 다큐, 뉴스 시리즈 제작

최근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지역 난민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CGNTV는 난민 사역자 이종덕, 김형석 씨와 함께 그들의 유럽행 대열에 합류했다. 중동 난민들은 현재 내전 및 테러, 기근 등의 이유로 난민 고속도로를 통해 유럽의 국가들로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CGNTV는 이러한 그들의 위태로운 상황과 눈물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다. 이번 취재를 통해 중동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인식한 CGNTV는 이를 12월에 있을 '블레싱 아랍 위드', 12월 9일~12일 요르단에서 있는 난민 사역자들을 위한 콘퍼런스 '무슬림 난민 사역 컨설레이션'에서도 전할 예정이다.



※CGNTV 기획 뉴스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시리즈)는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유럽의 난민 하이웨이> [방송] 12/31(목) 오전 9시30분, 재방 1/2(토) 오후 7시



'난민 하이웨이'는 시리아인들을 포함한 중동 난민들이 희망의 땅 유럽으로 향하는 통로다. 일주일 혹은 몇 년이 걸릴지 기약할 수 없는 긴 길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 <유럽의 난민 하이웨이>는 목숨을 담보로 그 길에 오른 수많은 난민들의 실상을 담았다.

그들은 매일 밤 춥고 더러운 길거리에서 어린 자녀들을 재우고, 국경을 담은 국가의 국경 앞에서 낙망하기도 한다. 집과 땅을 팔아 어렵게 만든 목숨과도 같은 돈을 브로커들에게 사기 당

하기도 한다. 또 한 줄기 희망인 지중해를 건널 고무보트는 정원을 초과해 위태롭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그들이 신봉하는 이슬람의 모스크는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

가난한 심령들. 교회와 선교사들은 이들을 위해 곁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손잡아 기도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다큐는 올해 들어 지중해를 건넌 난민 수가 68만 명을 넘어서고, 3200명이 탈출 중 목숨을 잃은 최대의 난민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며 이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뉘를 짚어본다.

미주 CGNTV _ <블랙마운틴> 기획 상영

미주 CGNTV는 CGNTV 방송 선교를 위한 후원 행사의 일환으로 내한 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의 기획 상영을 진행하고 있다. <블랙마운틴>(2015)은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블랙마운틴 지역에 생존해 있는 내한 선교사들과 그 후손들을 조명한 작품으로 선교의 산 역사를 전하며 국내외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바 있다. 특히 미국 선교 역사의 한 면을 보여주는 영상은 미주지역에서도 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영상을 본 각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CGNTV 방송사역의 가치도 높이 평가했다. <블랙마운틴>은 현재 미주 지역 10여 개 교회에서 상영됐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청을 받아 상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일본 CGNTV _ 일본 성도, CGNTV에 100만엔 헌금

오사카에 거주하는 한 일본인 성도가 일본 CGNTV에 100만 엔을 헌금했다. 그는 23회 오이타 러브소나타가 진행된 지난 10월 28일 이를 관계자들에게 전하며 "CGNTV를 통해 받는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모은 것"이라고 했다. 일본 CGNTV는 "귀한 헌금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일본 CGNTV는 시즈오카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지난 12월 5일 '시즈오카 시민 크리스마스(사진)'를 단독 중계했다. 이는 매년 진행되는 시즈오카 현



내 교회들의 연합 크리스마스 행사로 다양한 공연을 통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만 CGNTV _ 중국어 네이밍 이벤트 실시

대만 CGNTV는 방송사 인지도를 높이고 중화권 시청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대만 CGNTV'의 중국어 네이밍 이벤트를 진행한다. 2016년 초 진행될 본 이벤트는 대만 내 기독교 매체, 협력 교회들을 중심으로 광고를 펼쳐 많은 현지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만 CGNTV는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성경>, <청소년을 위한 크리스천 Q&A>(사진)를 제작한다. <이야기 성경>은 성경 이야기를 인형극과 삽화로 제작해 어린이들이 성경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크리스천 Q&A>는 기독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Q&A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다.



해외뉴스

태국 CGNTV _ C.C.T와 1차 공동프로젝트

지난 2015년 9월 태국기독교총회(C.C.T 교단)와 선교방송사역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태국 CGNTV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2016년 리얼리티 NGO프로그램 <탐디나>를 제작한다. 크리스천 NGO 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할 이번 프로젝트는 태국 내 고아원, 빈민가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을 담을 예정이다. C.C.T는 이를 위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정부 관련 행정업무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태국 CGNTV와 C.C.T는 2016년 하반기에 2차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CGNTV _ 자체 후원행사 개최

인도네시아 CGNTV가 지난 11월 28일 인도네시아 열린교회에서 자체 후원행사인 드림 콘서트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7개 교회의 한인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CGNTV의 비전을 전하고 찬양과 간증 등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로 진행됐다. 인도네시아신학교 와하르만 학장과 오옛 교수는 한국 CCM '주 품에'를 부르며 한인인 인도네시아인들의 연합을 도모했다. 이날 많은 참가자들이 인도네시아 CGNTV를 위해 후원을 약속했다.



후원안내 CGNTV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선교사! 선교지를 품은 여러분의 손길은 세계 각국에 복음으로 선포돼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1. 정기후원

- 1) 자동이체
- 2)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

- 1) 계좌이체(or 무통장입금) :
[후원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예금주: (재)은누리선교재단)
- 2) 신용카드 결제
- 3) 휴대폰 결제
- 4) ARS 전화후원: 060-700-1660 (전화 한 통화에 5천원)

3. 후원 신청 방법

- 1) 전화로 신청하기 ☎ 02-796-2243
-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http://give.cgntv.net>
'일시후원' 클릭
- 3) 모바일에서 신청하기 모바일 웹 m.cgntv.net에서 후원하기 터치

CGNTV 실행위원회 배종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고현준, 구재영, 권득한, 권익현, 김관근, 김관식, 김득한, 김명세,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신원, 김영길, 김오성, 김용성, 김원균, 김 인, 김인경,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춘수,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승, 박성호, 박영한, 박은영, 박이철, 박지수,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성필호, 손태용, 손한기, 송영태,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유병진, 유의준, 유이상, 유주희, 윤덕순, 윤석우, 윤원식, 윤호석,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길수, 이남식, 이범음, 이병하, 이서정, 이석일, 이영희, 이용경,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창환, 이춘희, 이학일, 이호영, 이희연, 임진옥, 임창빈, 장 광, 장양희, 장정심, 정광택, 정용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조옥형, 지성한, 차준한,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유강, 최정수, 최훈학, 하성기, 하주현, 한백진,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3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은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 ▶ 디지탈 무료비전 ch.70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GNTV ch.703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BS 무선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 ▶ alletv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B tv ch.554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LG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스마트폰

-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캔디팟캐스트)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인터넷 서비스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https://www.youtube.com/Globalcgn))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CGNTV의 최근 소식과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gntv - 트위터 www.twitter.com/cgntv

※ 기타시청문의 02-796-9800

CGN TV
편성
프로그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영어자막) 05: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지구촌 반사회 11:10 미니콘서트 섬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7:0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십자가 묵상 (영어자막) 08:5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0:2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07:0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08:50 [말씀] 라준석 목사 (시드니새순교회) 10: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7:40 [말씀] 김지철 목사(소방교회) 08:50 [말씀] 유진소 목사(ANC) 10: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하용조 목사의 십자가 묵상 (영어자막) 07:00 [말씀]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07:4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5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0:2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07:00 [말씀]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영어자막) 08:5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09:30 CGN 비전특강 10: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지구촌 반사회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6:00 생명의 삶 07:0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09: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0: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1:3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6:5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바이블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2: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1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4:50 [말씀]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2:30 [말씀]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13:10 [말씀]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13:5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컨퍼런스] 성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지구촌 반사회	12: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1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2:3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13:1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50 지구촌 반사회 14:5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컨퍼런스] 새 하늘과 새 땅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2:3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10 [말씀] 마크희 목사(뉴욕IN2) 13: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4:50 [말씀] 홍성욱 목사(안양제일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칩 잉그램의 은혜를 경험하라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50 새벽나라 18:0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12:3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3:1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3:5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6:3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과 세계관 17:2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3:00 나침반 바이블 23:30 일본 아마토 갈보리 채플예배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30 [말씀]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출애굽기> 21:0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2:40 지구촌 반사회 23: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방교회) 23:50 페리 노블의 믿음의 승부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9:3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20:1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21:0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영어자막)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3: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23:50 크레이그 그로웰의 유혹을 이기라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20:10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21: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22:5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23:20 [말씀] 홍성욱 목사(안양제일교회) 23:50 데이비드 플랫폼의 라디컬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19:30 [말씀] 라준석 목사 (시드니새순교회) 20:1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과 세계관 21:0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3: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23:50 존 파이프의 더 바이블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9: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10 2015 추양재단 목회강좌 21: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2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23:50 대린 패트릭의 사도행전 00:20 생명의 삶	18:20 하용조 목사의 십자가 묵상 (영어자막) 19:00 2015 추양재단 목회강좌 20:00 지구촌 반사회 20:40 [말씀] 유진소 목사(ANC)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2:0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23:0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3:5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00:20 생명의 삶

CGNTV는 기적의 산물

- CGNTV 초대운영위원장 지성한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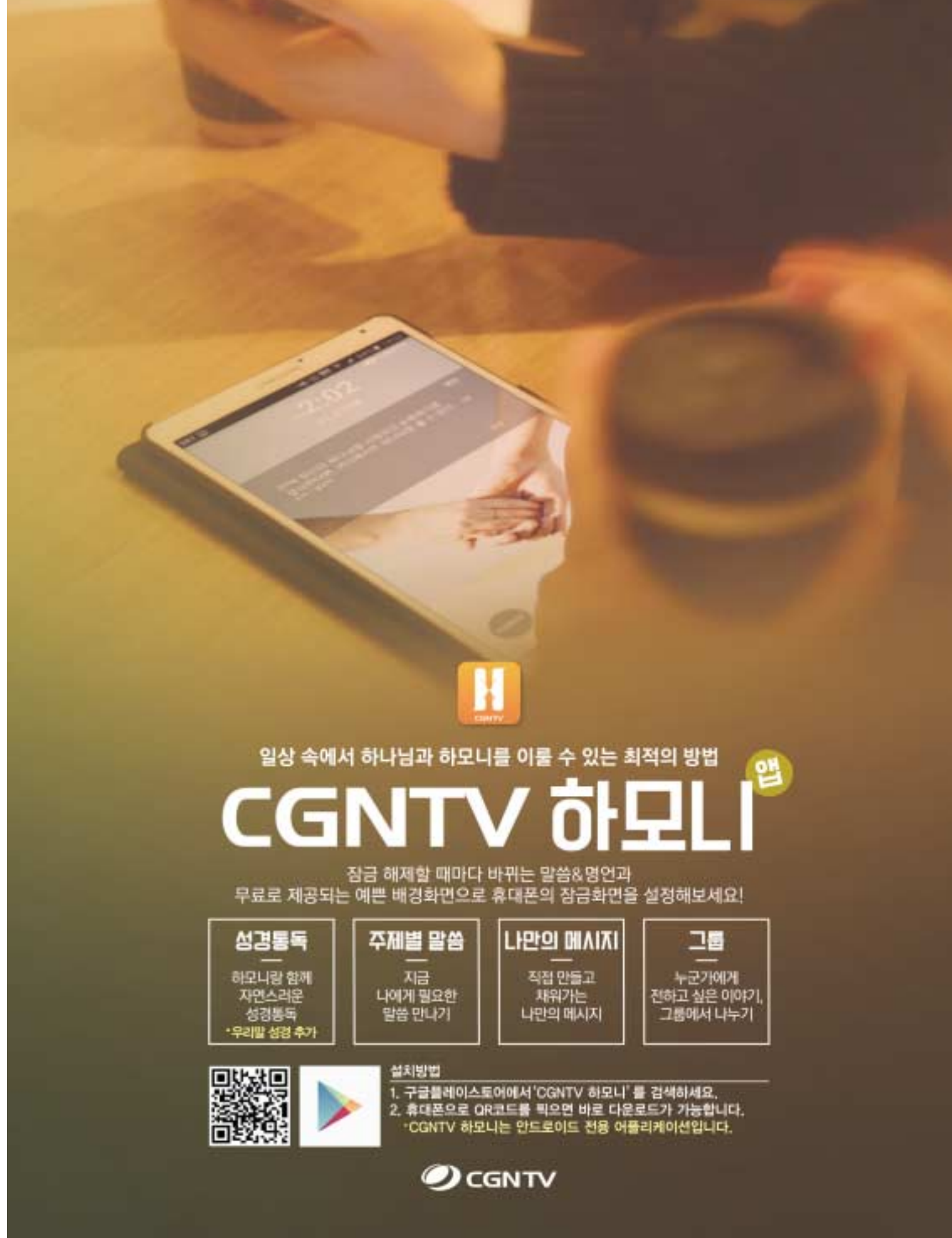
CGNTV가 한창 설립을 준비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당시 함께 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의 CGNTV를 구상하고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CGNTV의 지난 10년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요즘 많은 회사, 교회들은 자체 방송시설을 갖춰 영상제작과 방송을 통해 홍보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CGNTV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방송이 됐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앞서 CBS, CTS 두 개의 기독교방송국과 불교방송, 천주교방송에 각각 종교채널을 허가해 준 뒤이기 때문입니다.

CBS, CTS 등의 기독교방송은 물론 KBS, MBC, SBS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CGNTV는 5개 위성과 6개 빔을 통해 묵묵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GNTV를 통해 아랍, 아프리카, 남미 어디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오병이어 예화를 예수님의 이적으로 믿습니다. CGNTV의 사역 또한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주님의 오병이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박봉을 감수하면서 땅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CGNTV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성경말씀 중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욘 8:7)”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CGNTV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서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법

CGNTV 하모니 NEW

잠금 해제할 때마다 바뀌는 말씀&명언과 무료로 제공되는 예쁜 배경화면으로 휴대폰의 잠금화면을 설정해보세요!

<p>성경통독</p> <p>하모니랑 함께 자연스러운 성경통독 *우리말 성경 추가</p>	<p>주제별 말씀</p> <p>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 만나기</p>	<p>나만의 메시지</p> <p>직접 만들고 채워가는 나만의 메시지</p>	<p>그룹</p> <p>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룹에서 나누기</p>
---	---	--	--



설치방법

1.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CGNTV 하모니'를 검색하세요.
2.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CGNTV 하모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